

## 물화(物化)된 죽음으로서의 자살\*

양재섭\*\*, 구미정\*\*\*

### I. 들어가는 말

현대 물리학에서 소위 '엔트로피 법칙'으로 알려진 열역학 제2법칙은 자연현상에는 비가역적인 과정이 존재하며, 또한 고립계에서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고 말한다.<sup>1)</sup>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란 쉽게 말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다. 엔트로피의 양적 증가는 종말의 가까움을 암시한다.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게 청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써버린 에너지는 복구할 수가 없다.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러한 비가역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이버세계에서는 언제든지 이미 수행했던 작업을 깨끗이 지우고(delete) 다시 시작하는 일(reset)이 가능하다. 도처에 도피(esc) 수단이 널려 있고, 창(window)을 열고 닫음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도 있다.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상이 생겨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는 종료키를 눌렀다가 재부팅(rebooting)하면 그만이다. 게임을 하다가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가 죽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는 사람은 없다. 죽은 아바

타는 언제 죽었었냐는 듯이 로그인(login)과 더불어 부활할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재현하는 가상세계는 이렇게 무한히 가역적이다.

그러나 현실세계는 어디 그런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워지지도 않고 반복할 수도 없는 사건과 경험과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지경이 되어도 쉽사리 '도피'하거나 '종료'할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은 '부츠를 갈아 신는(re-booting)' 일과 확연히 다른 것이다. 한번 태어나면 모태로 되돌아갈 수 없고, 한번 죽으면 이 세계로 되돌아올 수 없는, 참으로 비가역적인 삶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산다는 말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가? 우리말의 '살다'는 목숨이 있는 생물이 목숨을 유지하려고 움직이는 모든 동작을 다 가리키는 낱말이면서,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생명 에너지를 불살라 가는 전 과정을 함축한다.<sup>2)</sup>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각자 태어날 때 부여받은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불사르다가, 마치 촛불이 어둠을 밝히며 고요히 타들어가듯이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사람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교신저자 : 양재섭 053-850-6461, jsyang@daegu.ac.kr

\*\* 대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유전공학과

\*\*\* 대구대학교 필휴먼생명학연구소

1) 제레미 리프킨. 엔트로피. 이창희 역. 서울: 세종연구원, 2002

2) 이기상. 다석과 함께 여는 우리말 철학. 서울: 지식산업사, 2003: 104

이 사는 일은 자기 몸을 불사르는 일이다. 인간은 '사름(生)'을 명(命) 받은 존재로서, 단순히 자기 목숨을 이어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헌신하도록 부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생명(生命, 살라는/살리라는 명령)의 신학적·윤리적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학계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죽음학(Thanatology)이나 생사학(生死學)은 결국 생명(生命)의 의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잘 죽는 것(well-dying)은 잘 사는 것(well-being)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일종의 선물이다. 좋은 삶이 좋은 죽음을 낳는다.

이 글은 '잘 살고 있지 못하다, 좋은 삶이 아니다'라는 인식의 귀결로서 앞당겨 죽음을 택하는 행위, 곧 자살이야말로 좋은 죽음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sup>3)</sup> 우리나라는 특히 IMF 이후에 자살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살 권하는 사회'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가 되었다. 2004년도 경찰청 통계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한다.<sup>4)</sup> 자살이 괴롭고 복잡하고 남루한 삶을 종결짓는 가장 빠른 길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기록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죽음의 물화(物化, thingification)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 현상을 강화하기도 한다. '툭' 하면 죽어버리는 '해프닝'의 빈도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어느덧 죽음에 무감각해져서 죽음을 '나의 죽음' 혹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빠져리게 느끼는커녕, 단순히 '남의 일' 이거나 '멀리 있는 일' 처럼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이다.<sup>5)</sup>

인간이 다른 만물과 구분되는 점은 오직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어느 철학자의 말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스스로 삶을 종결시킬 권리에 대한 물음은 죽음 물음의 주요 관심이 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특히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자살의 문제를 중심으로 죽음의 의미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왜 자살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부터 찾아보는 것으로 글을 시작해 본다. 그리고 나서 자살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보이는 고통스런 상황 속에서도 자살을 택하지 않은 성서적 모범으로서 욱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게 신앙이란 어떤 의미였는지 성찰해 보도록 한다. 더 나아가 신앙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자기 생을 스스로 종결할 권리가 있다는 자율성의 신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으로 자살의 윤리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는 의료윤리 및 의료윤리교육을 위한 간학문적 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II. 사례를 통해서 본 자살

자살에 대한 연구는 전형적으로 통계나 수치 등을 밝히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이다. 그러한 전개 방법은 자살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기에 용이하고, 또 연구자와 연구 주제 간의 거리두기를 가능케 함으로써 연구 자체의 객관성을 확보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살의 물화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맥락에서는 객관화에 초점을 둔 연구 방법보다는 오히려 사례를 통한 접근 방법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를 선별하

3) 자발적 안락사를 자살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의료윤리의 주요 관심사임에는 틀림없지만, 필자들은 그 둘을 구별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토마스 A. 쉐넌의 견해에 동의하므로, 이 글에서는 안락사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쉐넌은 두 가지 이유에서 자발적 안락사와 자살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자살은 생명의 정상적인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고, 대개 비의학적인 배경에서 발생한다. 둘째로 안락사는 질병으로 인해 긴박한 죽음 내지 확실한 죽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행된다. 토마스 A. 쉐넌, 기초생명윤리학, 구미정·양재섭 공역, 대구 :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 138 참고.

4) 세계일보, 2005. 10. 4.

5) 정진홍, 만남, 죽음과의 만남, 서울 : 궁리출판, 2003 : 24-27 참고.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9권 1호(통권 제15호) : 2006년 6월

는데 다소간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다고 해도,<sup>6)</sup> 각각의 사례는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게 하며, 더 나아가 ‘그’의 죽음에 애도하고 ‘그’가 겪은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반추하게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감적 반응이야말로 어쩌면 자살을 물화시키지 않는 첫 단계가 될지도 모른다.

• 사례 1: 성적 비관으로 인한 자살

“엄마!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엄마를 위로해 드려야 하는데 전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인생의 낙오자’란 꼬리표가 붙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전이 상황을 이겨나갈 자신이 없어요.” 2002년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다음 날인 11월 7일, 재수생이었던 정 양은 예상보다 ‘20점’ 낮게 나온 성적을 비관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 사례 2: 공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어른인 아빠는 이틀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신다. 어린이인 나는 8시 30분부터 6시까지 학교와 학원, 10시까지 공부. 27시간 30분 공부하고 20시간 30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외아들 초등학교 5학년생 정 군이 남긴 유서이다. 채팅 아이디(ID)가 ‘불행’이었던 이 소년은 2002년 11월 8일,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 사례 3: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

“사랑하는 우리 엄마 미안해. 얼굴과 다리 마비는 걸보기엔 괜찮지만 뼈와 입 안의 둔한 감각 때문에 후유증에 시달려 견딜 수 없었어요.”(고 양) “아빠, 엄마 미안해.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 무기력해지고 열정도 없고 매사에 의욕도 없

어. 기쁜 일도, 웃을 일도 없고…….”(김 양)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앓던 20대 여성 두 명이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다가, 2003년 4월 17일 춘천의 한 시외버스터미널 뒤 야산에서 농약을 마시고 동반자살을 하였다.

• 사례 4: 카드 빚으로 인한 자살

“사람들이 빚을 지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궁지에 몰리면 엉뚱한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지만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들 마시고 카드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젊은 사람들은 카드 사용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저 역시 몰랐습니다.”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대의 카드 빚을 지고 있던 20대 남자 세 명이 빚을 갚기 위해 강도짓을 벌인 뒤 이를 괴로워하다가, 2003년 5월 21일 부산의 한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동반자살했다.

• 사례 5: 취업 실패로 인한 자살

2006년 3월 29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극심한 구직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25세 여성이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또 다음 날에는 외국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도 취업이 안 된 것을 고민하던 35세 남성이 같은 방법으로 자살했다.

• 사례 6: 사업 실패로 인한 자살

2005년 10월 16일, 남편이 2억 원 상당의 빚을 전체 가출한 뒤 경제난을 견디지 못한 30대 아내가 7살, 5살 된 두 딸을 손을 잡고 저수지에 뛰어들어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았다. (이 여성은 최근 청주지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았

6) 이하의 사례 선별 및 구성방식은 오진탁의 글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는 10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필자들 나름대로 재구성해 보았다. 오진탁,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 서울 : 청림출판, 2004 : 111-131 참고.

다.) 또 2006년 3월 6일에는 사업 실패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던 40대 가장이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일가족 3명을 태우고 저수지로 차를 몰아 동반 자살했다.

• 사례 7: 노년의 소외감으로 인한 자살

2006년 3월 5일, 은퇴한 뒤 아내와 둘이서 쓸쓸히 여생을 보내던 84세 할아버지가 매달 수십만 원씩 드는 병원비에 부담을 느껴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하루 전날인 4일에는 한 다세대주택 지하 단칸방에 세 들어 살던 67세 할아버지가 엎드린 자세로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했다. 목욕탕을 운영했던 그는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때 부도를 맞았고, 아내와도 사별한 채 홀로 지내왔다. 또 2월 16일에는 아들이 사업실패로 자살한 것을 비판해오던 90세 할머니가 자기도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한다. 자살이 아무리 사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자살의 원인 속에는 결국 그가 몸담고 살던 사회의 병폐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세계적으로 청소년층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크나큰 지극적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대 자살의 주요 원인은 성적 비판이 가장 많고, 집단 따돌림과 이성문제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자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고,<sup>7)</sup> 또한 과도하게 많이 청구된 휴대전화 요금을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경우<sup>8)</sup> 등 새로운 자살의 유형이 등장하고 있어, 보다 면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10대 자살의 주요 원인이 가정불화와 폭력, 알코올과 마약 복용으로 인한 우울증 및 자살충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대비는, 결국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학생들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학업임을 말해준다. 소위 '학교화된 사회(schooled society)'<sup>9)</sup>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개혁이 없이는, 또한 경쟁과 폭력으로 일그러진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회개가 없이는 우리 모두가 10대 자살의 공범자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한편, 20-30대의 경우, 사망 원인 1순위가 교통사고, 2순위가 자살로 나와 있을 만큼 만성적 자살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취업 실패, 카드 빚, 이성교제 실패, 자아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데, 최근에는 외모지상주의까지 한 몫을 더해 이 연령대의 자살률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 급증으로 소위 '자살 예비군'으로 분류되는 백수나 은둔형 외톨이가 늘고 있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할 것이다. 고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순덕 교수팀은 지난 1983년부터 2000년까지 통계청 자료에 입각해, 자살률과 실업률, 그리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sup>10)</sup> 이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자살률 대비 경제성장률은 81.5퍼센트의 연관성을, 실업률은 82.6퍼센트의 연관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

7) 미국에서는 청소년의 자살 중 30퍼센트가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 시도율은 이성애자 청소년보다 2-3배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재홍 등의 2003년 연구에 따르면, 성 정체성으로 고민해본 청소년이 11퍼센트로 집계되고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겨레 21, 제588호, 2005. 12. 13. 커버스토리 참고.

8) 미성년자들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478만 명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지난 2월 한 중학생(16세)이 휴대전화 한 달 사용요금 370만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자살을 둘러싼 의혹을 풀기 위해 두 달간의 휴대전화 내역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화료와 문자 메시지 전송요금 3494원, 게임정보이용료 379,466원, 만화와 동영상 등 성인물 콘텐츠 접속에 따른 사용요금 1,517,282원으로 밝혀져,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적 60분, 2006. 3. 15. 방영분 참고.

9) 이반 일리치는 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불평등을 확대시킨다고 주장하면서 탈학교론을 주장하는데, 그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같은 학벌 사회는 '학교화된 사회'의 전형이다. 이반 일리치, 학교 없는 사회, 심성보 역, 서울: 미토출판사, 2004

10) <http://www.koreaedu.co.kr/news/a22.htm>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9권 1호(통권 제15호) : 2006년 6월

제성장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면 자살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으면 자살률도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20세 이상 자살률만 분석했을 경우에는 그 연관성이 86.5퍼센트로 크게 높아져, 청·장년층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자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고실업 시대의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정신병리적 문제이거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다루어야 함을 암시한다.

30~50대 가장이 부모나 실직 등 경제난 때문에 혼자 자살하거나 가족 전체와 동반자살을 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두드러진 자살의 양상 가운데 하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빈곤층이 끝내 재기하지 못하다가 장기 불황의 늪에서 결국 자살에 이르는 소위 생계형 자살은 명백히 사회적 타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특히 동반자살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좌지우지해도 되는가라는 중대한 윤리문제를 제기한다. 무고한 어린 자녀들을 순전히 부모의 결단에 의해 죽게 만드는 것은 명백히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 의식(we-consciousness)'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가족 간에는 더더욱 개체적 혹은 자율적 경계가 모호해지곤 한다. 동반자살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의 삶과 생명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재정립은 물론이고,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년층의 자살,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의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 2,329명이던 61세 이상

노인의 자살은 2001년 3,019명을 거쳐, 2003년에는 3,653명, 2004년에는 4,22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복지 선진국처럼 노후생계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오직 효 이데올로기에 의지해 자식에게 부모 부양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우리네 현실에서는 갈수록 독거노인의 빈곤화와 소외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소지도 없는 무허가촌에서 홀로 거처하는 고독한 노인들이야말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우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의 정비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한다.<sup>11)</sup>

### Ⅲ. 자살에 대한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설명

사례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자살 실태를 알아보았다면, 이제 자살에 대한 고전적인 인문학적 접근들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고 냉철한 이해를 가질 차례이다. 일단 자살의 정의부터 재확인한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자살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명백한 의지와 힘으로 자신을 죽여 버리는 행위”<sup>12)</sup>이다. 이렇게 볼 때, 자살은 순전히 의도적인 행위로서, 타인의 강요가 개입된 것은 자살이 될 수 없다.<sup>13)</sup> 예를 들면, 자식을 구하려다가 자식 대신에 죽임을 당한 어머니의 경우라면 자살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자살이 아니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경우처럼 스스로 독배를 마셨다고 해도 타인의 강요가 개입된 것은 자살로 인정하지 않는다.

위에서 다룬 사례들은 자살의 사회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자살은 매우 복잡한 내적·외적

11) 국민일보, 2006. 3. 6. 참고.

12)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편, 의학윤리, 서울 : 수문사, 1984 : 275

13) James Rachels, Barney Clark's Key, eds. by Paul T. Jersild and Dale A. Johnson, Moral Issues and Christian Response,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88 : 385

요인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골고루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14)</sup> 먼저 자살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를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심리적 분석과 사회적 접근으로 차근차근히 옮겨가 보도록 한다.

## 1. 자살 유전자 이론

자살을 생물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과학자들은, 자살자의 뇌를 해부한 결과 뇌 척수액에 들어있는 '세로토닌(serotonin)'의 기능이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관찰에 입각해, 세로토닌 관련 유전자가 자살 유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한다.<sup>15)</sup> 세로토닌은 감정 조절, 불안, 충동성, 폭력성, 우울증 등과 연관된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다. 이것이 부족하면 감정이 불안정해져서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충동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자살자나 우울증 환자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세로토닌 부족이라는 것이다. 이 세로토닌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수치가 높는데, 여성은 세로토닌의 농도가 조금만 변해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성에게서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기고, 자살시도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하는 것도 이런 민감성 때문이다. 다만 자살 성공률은 남자가 더 높는데, 남성은 공격성과 관련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 훨씬 과격한 자살 방법을 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유전학적 가설은, 자살자가 많은 가정에서 자살률도 높다든지, 쌍둥이의 경우 어느 한 쪽이 자살했을 때 나머지 한 쪽이 자살할 확률은 일란성의 경우

(11%)가 이란성의 경우(2%)보다 훨씬 높다든지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살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다만 세로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5-HTT 유전자'에서 특이한 조합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만 확인된 상태여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sup>16)</sup> 더욱이 자살과 같이 복잡한 문제를 유전자라는 단일 요인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유전자 결정론으로 빠질 우려가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타나토스와 나르시즘 이론

자살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죽음본능(thanatos)' 이론을 들 수 있다. 프로이트는 쾌락의 원천인 '성본능(eros)'이 끊임없이 통합하고, 부활시키고, 보존하며, 자극을 주는 힘이라고 본 반면, 죽음본능은 끊임없이 상호관계의 연결성을 해체하고, 살아있는 것을 파괴하여, 무(無)의 상태와 비유기적 상태로 환원시키는 작용을 하는 원시공격성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방어(ego defense)에 실패할 때, 다시 말해 초자아의 압력을 극심하게 받아 자아가 위축(우울증)될 때, 죽음본능 에너지가 증가하여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자존심에 극심한 상처를 입거나, 커다란 충격을 받아 감정이 격해지거나 하는, 이른바 '평형 상실의 정서'에 부딪혀서, 공격의 방향을 외부로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되면, 극단적인 형

14) 이하의 논의는 구미정, 자살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 현대사회와 기독교 편찬위원회 편, 현대사회와 기독교,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4 : 274-280 참고.

15) <http://www.nsm.go.kr/center/html/index.html>

16) 2003년 7월, 『사이언스(Science)』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5-HTT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영국 킹스칼리지의 테리 모피트 박사가 이끄는 국제 공동연구팀에 의해 실시되었다. 본래 5-HTT 유전자는 짧은 것과 긴 것 두 종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짧은 것을 두 개 갖거나 짧은 것과 긴 것을 각각 하나씩 또는 긴 것을 두 개 갖게 된다. 연구팀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21-25세의 젊은이 847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5-HTT 유전자, 그리고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최근 5년간 사별, 부채, 실직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4번 이상 받은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을 겪은 사람은 짧은 유전자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가 33퍼센트인데 반해, 긴 유전자 둘만 가진 경우는 17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살을 생각하거나 기도할 가능성은 짧은 유전자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가 긴 유전자 둘만 가진 경우보다 3배가량 높다고 연구팀은 말했다. 그러니까 짧은 5-HTT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우울증에 걸리거나 더 나아가 자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hottrend.asp?no=9409>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9권 1호(통권 제15호) : 2006년 6월

태의 자살로 나타날 수 있다.<sup>17)</sup>

여기서 죽음본능이 하는 일은 유기적 생명체를 무생물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다. 유기물보다 무기물이, 생물체보다 무생물체가 지구상에 먼저 존재했다고 하면, 유기적 생명체에게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 무생물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을 수 있다. 즉 무(無)로 귀착하고 싶은 본능 말이다. 프로이드는, 에로스가 더 큰 통일체를 형성하여 보존하는 것, 즉 에너지를 묶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타나토스는 그 결속을 풀고 해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자살자 혹은 자살기도자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으로서, 삶에 대한 애착이나 이성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프로이드의 타나토스 이론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가 하면, 자살은 '자아도취(narcissism)'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sup>18)</sup>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사람은 자기애(自己愛)적 위기에 빠져들기 쉬운데, 이 때 자살은 약화된 자신감을 외면하려는 절망적인 시도라는 것이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정당한 비판에도 공격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에게 거부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의 상처가 분노의 폭발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로 쏟아 부을 때 자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자살예방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Suicide Prevention) 초대회장을 지낸 링겔(Erwin Ringel)은 자살을 “타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억압된 공격성의 자기 전가”<sup>19)</sup>라고 정의한다. 자살자가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심리과정을 추적한 그의 관찰에 의하면, 자살은 우선 무능(無能) 체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끝장이다,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상태, 곧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적 파국’이라 불리는 마음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의 자아는 급격히 협소해져서 대인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모든 것에 대해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결국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병적 상태에서 자살을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하버드 의대 정신병리학 교수인 제이콥스(Douglas G. Jacobs)는 자살행위를 오랫동안 지속된 심리적 고통의 결과로 본다. 그는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장기간의 가족 갈등 및 부정적인 생활과 사건 → 그에 대한 비효율적인 대처기술 → 점진적인 사회적 고립 → 희망의 상실을 일으키는 체험 → 자살기도”로 이어지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한다.<sup>20)</sup>

물론, 자살은 즉흥적·충동적·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링겔이나 제이콥스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겉보기에 가벼워 보이는 자살이라도, 그 이전에 이미 오랜 시간 누적된 고통의 연속과정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자살자 혹은 자살기도자는 아마도 오랜 시간 홀로 번민하고 고통당하면서 알게 모르게 주변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단서와 메시지를 남겼을 것이다. 문제는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동안, 아무도 그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즉 ‘나’의 무관심과 무능력이 ‘그’의 자살의 한 원인이 된다.

자살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자살자의 심리를 밝혀 줌으로써 자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더불어, 그들의 내면세계를 돌보지 못한 주변 사람들의 연대적 책임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

17) Sigmund Freud, Totem and Taboo, eds. by James Strachey et al.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Vol. x iii. London, 1962. :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편, 의학윤리 : 278에서 재인용.

18) 게르트 미술러, 자살의 문화사, 유혜자 역, 서울 : 시공사, 2002 : 17

19)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편, 의학윤리 : 279-280

20) 신민섭,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자기도피 척도의 타당화,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1992 : 11

히 미수에 그친 자살, 즉 성공하지 못한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만연한 현실에서 자살자의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자살기도자와 자살미수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자칫 자살자의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그의 죽음을 막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을 남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서는 안 될 것이다.

### 3. 이기적 자살 · 이타적 자살 · 아노미적 자살

자살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유독 자살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 자살자가 속출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전세계 자살 현황 면에서는, 오스트리아 · 헝가리 · 체코 · 스칸디나비아 · 독일 · 스위스 · 프랑스 등의 자살률이 오랫동안 우위를 차지해 오고 있는 반면, 지중해 연안 국가의 자살률은 계속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비가 많은 북쪽과 햇볕이 많은 남쪽의 기후 차이에도 기인하지만, 북유럽과 남유럽의 도시화 차이 때문이라고 사회학자들은 분석한다.<sup>21)</sup> 즉 도시의 익명성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삶의 위기에 다른 개인에게 시련을 극복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 없다는 사실이 도시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또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밝혀냈다. 어느 사회든지 대개 상류층과 하류층의 자살률이 중간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까닭은, 상류층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낭패를 보았을 때 열등감 때문에 자살하는 반면, 사회 밑바닥 사람들은 먼저 중요성에 불타다가 그것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에서 고전으로 뽑히는 것은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의 이론이다.<sup>22)</sup> 뒤르켐은 우선 사회와 종교를 불가분의 보완관계로 보았다. 종교는 사회가 기능하고 유지되도록 어떤 도덕원칙을 사회에 부여한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종교적 계명을 사회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켜서 사회질서가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종교는 사회구성원들을 연결해주고, 사회 집단을 하나로 묶어주며, 특정한 태도를 장려하거나 억제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부양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종교가 더 이상 윤리적 행동규범으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 종교가 그 사회적 구속력을 상실할 때, 사회적 결속력이 해이(解離)해져서 자살이 늘어나게 된다. 뒤르켐은 이러한 자살의 유형을 이기적 자살 · 이타적 자살 · 아노미적 자살로 구분하였다.<sup>23)</sup>

이기적 자살은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와 상호관계를 맺지 못하여 사회 속으로 올바르게 통합되지 못한 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게끔 고립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집단적 의식(儀式)과 교리에의 철저한 순종을 강조하는 가톨릭에 비해 개인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개신교에서 자살자의 수가 많은 것,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보다 핵가족 형태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 기혼자보다 독신자, 그것도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이 자살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 등이 이기적 자살 유형에 속한다.

이타적 자살은 이기적 자살과 정반대로, 개인이 집단과 대단히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자살이다. 즉, 개인이 집단의 목적이나 가치에 거의 완전히

21) 게르트 미슐러, 자살의 문화사 : 18

22) 에밀 뒤르켐, 자살론, 김충선 역, 서울 : 청아출판사, 2000

23) Ibid. 147-295 참고.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9권 1호(통권 제15호) : 2006년 6월

매물 또는 동화된 나머지, 자기의 개성을 상실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 본위적 자살'에는 다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순사(殉死)와 같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적 자살; 둘째, 그 뜻을 따르면 사회적 덕과 존경이 주어지고, 따르지 않으면 불명예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수의적(隨意的) 자살; 셋째, 이렇다 할 이유는 없지만 그저 찬양받기 위해, 희생의 희열(喜悅)을 갈구하여 자살하는 열정적 자살이 그것이다.

이기적 자살이나 이타적 자살이 모두 개인의 사회적 통합도와 연관되어 있는 반면, 아노미적 자살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급격히 변화하여 그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살이다. 이를테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어 뜻하지 않게 막대한 돈이 굴러들어온다든지, 또는 반대로 주식 값이 폭락해서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애인의 죽음처럼 과거에 의미 있던 삶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회구조가 지나치게 느슨하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엄한 차원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듯한 상실감과 무력감을 갖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자살이 아노미적 자살이다.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는 아노미적 자살의 일례를 보여준다.<sup>24)</sup> 주인공 김영호(설경구 분)는 1999년 봄 우리 사회가 외환위기의 암울한 터널 속을 통과하던 당시,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뒤 남은 돈마저 몽땅 주식으로 날린 채,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몸을 던진다. 그는 이른바 '광주사태'라 불린 정치적 아노미와 'IMF 사태'라 불린 경제적 아노미에 의해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짓밟혀진 우리 사회 소시민의 전형으로서, 극단적인 자살의 형식을 빌려, 원치 않는 운명 속으로 자기를 휘몰아 넣은 사회에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무엇보다도 사사화(私事化)되기 쉬운 자살을 사회화(社會化)한다는 점에서 뛰어난 통찰을 던져준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 왜 동일한 사회적 조건과 상황 하에서 어떤 사람은 곳곳이 살아남는데, 다른 사람은 자살을 택하는 것일까? 사회라는 외적 요인이 중요한 만큼, 개인의 태도라는 내적 요인도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닐까? 삶에 몰아닥친 고통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고통을 수용하는 개인의 태도가 문제가 아닌가? 이 대목에서, 친구들과 아내까지도 자살을 종용할 정도로 힘든 고통의 벼랑 끝에서도 끝내 죽음을 택하지 않고 살아남은 한 위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인에게 친숙한 구약성서의 인물인 욥의 이야기는 고통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심오한 통찰을 던져준다 고 본다.

## IV. 자살에 대한 신학적·윤리적 접근

### 1. 욥의 실존적 고뇌와 신앙적 극복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 게다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 '양심 불량'한 사람들에 비하면,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까닭 없이 불운과 고생이 뒤따를 때,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에 절망하게 되고, 또 이런 세상을 내버려두는 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된다. 구약성서에서 『욥기』가 위치한 맥락이 정확히 이 지점이다.

24) 이 영화는 1999년 제4회 부산국제영화제와 제3회 아시안필름페스티벌 개막작품으로 상영되었고, 제37회 대중상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하여 총 5개 부문을 석권했으며, 제53회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선정되었다.

『욥기』는 흔히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왜 고난을 받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약학자 민영진에 의하면, 욥기의 첫 두 장에 나오는 신과 사탄의 대화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인간이 까닭 없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사탄의 말에서 보듯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신앙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주제라고 한다.<sup>25)</sup> 신은, 사람이 신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신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욥을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내세운다. 여기에 반해 사탄의 주장은, 사람이 신을 섬길 때는 반드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섬긴다는 것이다.<sup>26)</sup> 그래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가리기 위해 욥의 시험이 시작된다.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라던 욥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게 된다. 일곱 아들과 세 딸도 졸지에 죽음을 당한다. 심지어 욥의 몸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된다. 오죽 마음이 괴롭고 육신이 고달프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읊조릴까?(욥 3:10)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버렸어야 하는데, 태어나는 순간에 숨이 끊어졌어야 하는데(욥 3:11), 하고 자조하는 욥의 말에서 고통의 깊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진지하게 죽음을 요청한다. “낙태된 핏덩이”의 처지를 동경한다.(욥 3:16) 그렇게 죽었더라면 지금쯤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욥 3:13), 살아 있는 것이 이토록 잔인한 형벌일 수가 없다고 한탄한다.

그 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 곳은 간헐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 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욥 3:17-21)

이보다 더 절실한 ‘사(死)의 찬미’가 또 어디에 있을까?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다고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신에게 원망과 불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욥에게서 진한 인간미가 느껴진다. 그는 부당하고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억지웃음을 짓는 위선을 거부한다. 죽고 싶은 인생에게 죽음조차 허용하지 않는 신의 속내가 그저 야속하기만 하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빼만 앙상하게 살아 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욥 7:15-16)

그의 말은 오늘날 자살의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25) 민영진, 설교자와 함께 읽는 욥기,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2: 11

26) 욥기에서 사탄은 욥의 정직함과 그의 신실한 믿음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천상의 시종으로 등장한다. 그는 신의 허락 하에 욥의 사람됨과 신께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이 사탄은 신약성서의 사탄과 달리 타락한 천사라거나 신을 대적하는 악한 천사가 아니라, 신의 부하 개념이다.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사탄은 신과 영원히 대립하는 이원론적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신의 계획과 통치 아래서 움직이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Ibid. 28-33 참고.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9권 1호(통권 제15호) : 2006년 6월

마음을 대변하는 것만 같다. 살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라도 찾기 위해 고뇌하는 욕은 허무의 늪에서 좌초한다. 꽃과 같아서 피었다가 곧 지기 마련인 인생, 그림자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는 속절없는 인생, 사는 날 수와 달 수가 한정되어 있는 유한한 인생, 그 짧은 생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욥 14:1-6 참고), 그런 인생을 굳이 지속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투정부리고 매달리고 항의하고 절망하는 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놓지 않는다. 여기에 욕이 지닌 신앙의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 신이 왜 자기 삶에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욕은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저버리는 불신앙의 유희에 빠지지 않는다. 신은 절대적으로 자유한 분이시다.(욥 23:13) 우리는 신의 절대적인 자유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

욕은 마침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욥 42:3)라고 회개하면서, 신의 신비한 경륜 속으로 자기를 내어맡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고, 내가 찾을 때 숨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신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욥 23:8-10 참고)임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신앙인이자고로 "우리가 누리는 복도 신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욥 2:10)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내 삶에 이런 고통이 닥치는가(why me)?' 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왜 나라고 해서 예외가 되겠는가(why not me)?' 하고 되물으며 수용의 자세로 견뎌나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길이라고 한다.<sup>27)</sup>

욕의 경우에, 인생에 닥친 불가해한 고난 속에서 죽음을 고대하고 찬미할 만큼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위기를 극복하게 한 힘은 바로 신앙이었다. 그에게 신앙은 신에

대한 어떤 물음도 허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맹신이 아니라, 모든 물음을 허용하는, 즉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묻고 또 묻는 실존적 대화 자체였다. 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이 문제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재산은 무일푼이고, 죽은 자식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몸의 질병도 그대로이고, 친구와 아내는 비웃음 속에 떠나버렸다. 그러나 고통을 이해하는 나의 관점이 달라졌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하고 물을 때는 죽음만이 구원으로 여겨졌는데, '왜 나라고 해서 이런 일이 닥치면 안 되는가?' 하고 묻게 되자 살아있음의 신비가 은혜롭게 다가왔다. 고통이 없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것이다. 불교의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一切有心造)", 즉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그래서 진리가 아닐까?

## 2.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sup>28)</sup>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와 자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칸트 이후 세속 윤리에서 거의 절대적 규범으로 떠받들어지는 자율(autonomy)의 개념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처분권마저 허용한다. 인간의 존재 근거를 신에게 두는 신학적 인간관에 비추어 보면, 인간에게는 자기 임의대로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종결시킬 권리가 주어지지 않지만, 세속 윤리는 그렇지 않다. 각자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본주의 윤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결정에서 개인은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결정

27) Ibid. 304-307 참고.

28) 김영하의 동명 소설에서 빌려온 소재목이다. 김영하는 이 작품으로 제1회 문학동네 신인작가상을 수상하였다.

에 대해 도덕적 근거를 밝힐 의무가 없다.”<sup>29)</sup>

이러한 자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살의 권리를 주장하는 작가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장 아메리(Jean Amery)가 있다. 그는 1976년에 펴낸 『자살하기 : 자유 죽음론』에서 자살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유죽음’을 제안하며, 인간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메리의 자유죽음론은, 요컨대 자살함으로써 당사자가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 구조를 지닌다.<sup>30)</sup>

- 1) 자살은 인간이 인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며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다.
- 2) 자살에서 최고 형태의 인간적 자유가 실현된다.
- 3) 자살은 인간에게 휴머니즘과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해준다. 자살은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며 부자유한 삶에서 인간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 4) 자살하겠다는 결정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자유로운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와 병적인 상태의 경계는 유동적인데도, 그것이 지배사회의 대변자들이라 할 수 있는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의 자의적인 구분에 맡겨져 있다.
- 5) 자살을 감행하는 순간 모든 자살자는 그들 삶의 이력과는 무관해진다.
- 6) 자살자가 치료에 성공하여 삶이 살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자살을 시도하기 전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미 사회의 기대에 적응했고 삶의 논리에 몸을 맡긴 것이다.
- 7) 자살을 통해 삶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독단이 폐기되었다. 죽음은 삶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 8) 자살은 절대적 개성, 즉 자기 자신에 속한다는 것의

표현이며 절대적 정체성의 표현일 수 있다.

이 여덟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 1) 자살은 인간만의 고유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자살이 ‘인간이 인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자살하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인 선택이란 말인가? 오히려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자신의 죽음을 의식한다는 점, 그리하여 예기치 않은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편안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점이 아닐까?
- 2) 자살을 통해 실현된다고 하는 최고 형태의 인간적 자유가 과연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유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라는 뜻인가? 이미 자살한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가? 이 논거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빈약한 사견에 지나지 않는다.
- 3)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며 부자유한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살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휴머니즘과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말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자살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일 것이다.
- 4) 정신적 건강과 불건강 사이의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지적은 옳다. 그리고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에게 그 경계를 설정할 전적 권한을 주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살의 결정을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기보다는 방중에 가깝기 때문이다.
- 5)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은 이로써 자신의 삶의 이력과 단절되기를 바라겠지만, 죽음은 결코 삶의 끝이

29) 구인회, 현대인에게 있어 죽음의 의미와 그 도덕적 문제, 철학탐구, 제16집, 2004, 71

30) 토마스 브로니쉬, 자살, 이재원 역, 파주 : 이괄리오, 2002 : 118-126; 오진탁,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 : 135-136에서 재인용.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9권 1호(통권 제15호) : 2006년 6월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어지는 연속적 사건이다. 자살은 자살자 개인은 물론이요 그의 가족과 공동체의 이력에 영구적인 흔적과 상처를 남긴다.

- 6) 자살기도자가 더 이상 자살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만큼 건강해진 상태를 회복한 것이 어째서 그의 자기동일성을 의심할 일인지는 의아스럽다. 오히려 축하하고 격려할 일이 아닌가? 게다가 사회의 기대에 적응하고 삶의 논리에 따르는 삶이 반드시 나쁜 것인가?
- 7) 죽음이 삶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옳은 것이다.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과 동등하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살을 통해 삶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독단이 폐기되었다는 주장은 비약적이다. 물론 그렇게 판단해서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오히려 정반대의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살은 인간다운 죽음과는 별개일 때가 많다.
- 8) 인간이 진공상태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는 한, 절대적 개성 추구가 가능한가를 물을 수 있다. 최근의 생태학적 인간관은 그와 같은 자율적 인간관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인간은 자율적·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에게 연결된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하나의 그물코로 존재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기 이전에 벌써 다른 사람과 만물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적으로 볼 때, 자유죽음론은 '자유'에 대한 오해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주며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여,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그것이 결코 신을 배제한 채 인간이 자의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자율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sup>31)</sup> 욱의 깨달음에서 보듯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절대적 자유는 오직 신의 뜻이다. 참으로 자율적인 존재는 신뿐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윤리가 인간의 노예화를 부추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창조되었다. 인간은 전적인 신의 통치를 수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자유의지야말로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선물이다.

탕자의 비유(눅 15:11-32)에 자유의 본질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본다. 아들은 아버지를 거부할 만큼 자유롭다. 아버지는 떠나는 아들을 잡지 못할 정도로 아들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한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유의 참 의미에 눈뜨게 된다.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자유를 모르는 게 인간이지만, 또한 참으로 자유롭게 된 이후에는 스스로 속박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아들은 어떠한 강제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아들이 깨달은 것은 아버지 안에서의 자유야말로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사실이다.

기독교 윤리가 말하는 자유란 바로 이러한 차원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이 자유는 자유죽음론이 주장하는 '자살할 자유'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다. 모든 생명이 신에게 속해 있다고 보는 신학적 관점에서는 남의 생명을 해할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을 해할 권리도 없다고 본다. 칸트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좋다"는 말로써 신비의 가치를 긍정했으며, 신을 '요청'했다.<sup>32)</sup> 그렇다면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31) 디트리히 본회퍼, 기독교 윤리, 손규태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2

32) 임마누엘 칸트,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논기, 이원봉 역, 서울 : 책세상, 2002

세속적 가치에 지배당하며 그릇된 자율성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는 성성(聖性)의 회복이 아닐까? 맹목적인 믿음과 건전한 믿음을 혼동하는 신앙인이나, 방종과 자유를 착각하는 비신앙인 모두는 생명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생명의 물화현상에 공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서구적 가치의 강제적 주입으로 공동체성은 무너지고 자율성의 부작용이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생명관은 바로 “생이불유(生而不有)”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로 ‘생명을 낳았으되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자도 효경에 이르기를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하니, 불감훼상(不敢毀傷)이 효지사야(孝之始也)라”고 했다.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말이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도(道)를 만물의 어머니(萬物之母)라고 한 것과 연결지어 볼 때, 공자의 부모 개념도 신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태초에 만물이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신이야말로 천지만물을 낳으신 부모가 아닌가? 생명의 사유화(私有化) 현상이 두드러져서, 생명은 각자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각자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 때, 생명의 주권이 개체 생명 혹은 낱생명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깨달음은 복원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V. 나가는 말

주변에서 자살자나 자살기도자 혹은 자살미수자를 대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를 비정상적으로 매도하고, 그의 인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아니면 그의 가정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등 도매급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자기가 신 노릇까지 하려고 드는

종교인들도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행태는 죽음을 물화시키는 전형적인 태도로서, 적어도 남의 죽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살은 물론 칭송받을 일이 아니며, 따라서 모방하거나 추종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살자·자살기도자·자살미수자를 비난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거대한 그물망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쁨에 공명해야 하는 존재인 바, 누군가 자살을 꿈꿀 때 우리가 전혀 그의 고통을 눈치 채지 못했다면, 우리의 불감증이 오히려 회개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살 문제에 접근할 때는 무엇보다도 자살자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모른다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어떤 죽음도 쉽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겸허한 자세를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살의 윤리는 일차적으로 제삼자가 자살자·자살기도자·자살미수자에 대해 가져야할 윤리적 의무를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명백히 자살은 풍부한 공동체적 경험과 깊은 영적 깨달음의 자원이 되어야할 죽음을 물화시키는 대표적인 방편이다. 어느 누구의 관심이나 보살핌 없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비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해 스스로를 죽이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물화시키는 사건도 없다. 물화된 죽음은 생명에 대한 물화로 이어진다. 아니, 생명의 물화 현상이 죽음의 물화를 낳는다. 그 둘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더 많은 자살자를 양산해낸다.

죽음을 물화시키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인생에 닥치는 불행과 고통을 바라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왜 나만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유아적·개인주의적 사고에 빠지지 말고, ‘남들도 다 당하는 고통인데 어쩌서 나라고 예외이겠는가?’라는 유기체적·통전적 사유방식을 체득하게 될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수동적 수용을 넘어서 생명에 대한 적극적 긍정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윤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9권 1호(통권 제15호) : 2006년 6월

참 의미와 생명의 가치를 증거함으로써 생명을 경축하고 보살피는 문화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이 공적 부양체계에 호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자살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대한 비판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책임적 노력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생명윤리는 종교적 자원과 일반윤리적 자원을 동

원하여 이 시대의 생명 물화 현상을 치유할 대안적 가치관을 제시할 예언자적 소명을 지닌다. ■

**색인어** : 자살, 물화, 생명의 소유권, 욕, 종교적 지혜

## Suicide as "Thingified" Death

YANG Jae-Sub\*, KOO Mi-Jung\*\*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suicide in South Korea, where the overall suicide rat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1997. In 2004 South Korea had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all OECD countries. The article begins with a definition of suicide as "thingified" death. Suicide is "thingified" death insofar as the agent is deprived of the possibility of a good death or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The article presents a description and analysis of typical cases of suicide in South Korea. After considering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aspects of suicide, the article provides theological and ethical analyses of suicide. The Old Testament story of Job is introduced as a theological model of enduring life no matter how much suffering it involves. Finally, the article evaluates the notion of ownership of life, individual autonomy, and the freedom to kill ourselves in light of Eastern philosophical and religious traditions.

▶ **key words** : Suicide, "Thingified" death, Job, Ownership of life, Religious wisdom

---

\* Department of Genetic Engineering, Daegu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Philhuman Institute of Life Studies, Daegu University